

3/9(화) 룯기 묵상 4

룯기 2:1-7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룯이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밭에 나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엘레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룯을 인도하셨고 보아스로 하여금 친절과 호의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1절에서 보아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보아스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먼저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주로 ‘용사’, ‘부자’, ‘존경’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인데 이를 종합해 볼 때 보아스는 그가 살던 지역에서 존경 받고, 능력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친족’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황상 기업 무를 의무를 가진 혈육 관계에 있는 사이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룯이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된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3절, **“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룯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연히 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가 볼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종교에서 믿는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운명론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거스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데 하나님의 신적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속에 룯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와 룯의 첫만남

사사 시대에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부유층들 또 변질된 몇몇 사사들과 비교해 볼 때, 보아스는 부유하면서도 경건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헬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니이다 하니라.”**). 4절을 보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추수 때에 보리나 밀 등을 베는 일꾼들이었고 또 하나는 룯과 같이 추수꾼들이 떨어뜨린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 이삭을 줍는 자들은 최극빈층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만일 추수하는 자가 보리나 밀 등을 벨 때 한 줄기나 두 줄기를 놓쳐버리면 그것은 이삭 줍는 자의 몫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세 줄기 이상은 주인에게 다시금 돌려져야 했다.” By Pulpit Commentary). 아무튼, 이들은 모두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종들이었지만 보아스는 그들을 하찮게 대하지 않았고 신앙적 인격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일꾼들도 주인인 보아스를 존경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때 많은 일꾼들 중에 보아스의 눈에 띄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룯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룯을 알아봤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룯이 모압 여인으로서

보통 이스라엘 여자들과는 생김새가 달랐고, 한때 부유했던 엘리멜렉 가문의 며느리 룯의 모습은 여느 종들과는 달리 단정한 몸가짐을 보였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룯은 이전에는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였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이 많은 홀어머니를 모시는 가난하고 궁색한 과부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룯은 불평하지 않았고 어머니를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오늘 본문에서 룯이 하나님의 작정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창세 전에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엡 1:11,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잠 16:33,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신학적으로 엄밀히 구분하자면 작정은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예정은 인간과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정의 교리가 은혜로운 것은 우리는 종종 인생을 후회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보지 못한 길과 결정 등등에 대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인도하신 삶을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짓는 죄는 단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자의 죄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다시 주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은 엘리멜렉의 가족과 같이 많은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보다는 순종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미국내 교회를 위한 기도: 미국 교회들과 미국 내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햄튼 5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권용봉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